

학령기 아동의 사교육 이용에 대한 종단적 변화 및 예측요인

김 신 경*
(육아정책연구소)

김 소 아
(세브란스푸르니어린이집)

송 요 현
(육아정책연구소)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9차년도 가구 및 아동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학년 증가에 따른 사교육 이용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아동, 부모, 가구의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차년도 기준으로 초등학교 4, 5, 6학년생 758명이 이용하는 사교육 수와 그 비용이 학년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고학년이 되고 상위학교에 진학하면서 이용하는 사교육 수는 유의하게 감소하는 반면, 실질 사교육비의 증가량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변화하는 정도는 개인마다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 특성 중 사교육 수와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출생순위, 학업 성적, 문제행동 중 주의집중문제와 비행, 공격성이었다. 셋째, 부모 특성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사교육 비용의 초기값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모의 교육참여는 고등학생 시점일 때 사교육 이용의 변화에 종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구 특성으로는 아동가구원 수, 소득, 거주 지역이 모두 아동의 사교육 이용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용어: 사교육 이용, 사교육비, 잠재성장모형, 한국복지패널

본 연구는 제8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2015.9.18)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내용임.

* 교신저자: 김신경, 육아정책연구소(sink@kicce.re.kr)

■ 투고일: 2016.1.29 ■ 수정일: 2016.3.14 ■ 게재확정일: 2016.3.18

I. 서론

사교육의 확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은 사교육 비중이 높은 나라로 분류된다. 한국의 사교육 투자비용은 OECD 평균 16.1%의 2배 가량이며(The Korea Herald, 2014.9.10.), OECD 국가 내에서도 높은 수준이다(OECD, 2011). 그동안 정부는 공교육 신장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2015)의 사교육비조사에 따르면 2014년 초·중·고등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이 68.6%로, 70%에 달했다. 학교 급별로 비교했을 때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1.1%로 나타나, 가구의 경제적인 수준과 크게 상관없이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사교육을 시작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사교육 이용을 증점으로 다룬 많은 선행연구들은 사교육의 효과를 살펴보거나 사교육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사교육의 효과를 다룬 선행연구(김경근, 연보라, 장희원, 2014; 변수용, 김경근, 2008; 정익중, 2011; 최형재, 2007)는 주로 비용 측면에서 투자 대비 사교육의 효과를 논의하고 있다. 사교육 효과는 주로 학업 성취도와 함께 논의되는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무조건적인 긍정적 효과만을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사교육에 대한 과다 지출이 가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가계의 경제 수준에 따라 교육양극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층 간 격차를 확대하고 가계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국내의 사교육 현실에 주목하여, 사교육 이용의 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예측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사교육 이용이 대학 입사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아동과 부모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사교육 이용을 결정하게 된다. 관련하여, 사교육 이용과 예측요인을 다룬 다수의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크게 가구, 부모, 아동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가구 특성에 따른 사교육 이용의 차이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비용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소득계층을 비교한 연구(김문길, 김태완, 박창렬, 여유진, 우선희, 2013; 남기곤, 2008; 박종서, 2015; 백학영, 안서연, 2012)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상위 소득계층에 비해 전체 소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다른 지출에 대한 제약이 크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교육비가 저소득층의 가계경제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 소득과 더불어 자녀 수 또한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고려되고 있으며(강창희, 현보훈, 2012; 박종서, 2015), 정익중(2011)은 강남 8학군이라는 특정 지역의 사교육이 다른 지역에 비해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을 들어 지역별 차이를 밝히기도 하였다. 가구 특성 외에도, 부모의 경제활동상태(석재은, 김봉근, 노혜진, 2012)나 부모의 교육적 관여, 학업지원 정도나 양육방식(노현경, 2006; 변수용, 김경근, 2008; 연보라, 장희원, 김경근, 2013),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김현진, 김미혜, 2014; 박철성, 2011) 등이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구 및 부모 특성과 사교육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 비해 수는 적지만, 아동 특성을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한 연구도 있다. 학교 급이 증가하면서 아동은 점점 학업의 주체가 되어 사교육을 직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교육 관련 연구에서 아동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이 사교육을 이용하는 데 있어 인지적 측면에서 학업 성적(김기현, 2007; 신인철, 김기현, 2010), 학업과 관련된 명문고의 진학희망(김현진, 김미혜, 2014), 학교만족도(노현경, 2006)를 살펴본 연구들은 성적이 높고 학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더 많은 사교육을 이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학업관련 변인 외에 아동의 사회정서 및 행동 발달 특성과 사교육의 이용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우리나라 아동의 대부분이 사교육을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많은 아동들이 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사교육 현장에서도 또래와 교사 간의 관계를 맺게 되므로 사회정서 및 행동발달과 관련된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하여, 본 연구는 가구, 부모, 아동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사교육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특성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기존의 사교육 이용에 관한 선행 연구는 부모와 가족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며, 아동 특성을 고려하였더라도 학업 관련 특성에만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최근 들어 패널 데이터와 같이 전국 단위의 통계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사교육 이용의 변화를 종단적인 방법론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은 초·중·고등학교에 걸쳐 지속되기 때문에 전 시점을 포괄하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기존의 사교육 이용 관련 종단연구는 대부분 5년 이하의 짧은 시기를 포함하는데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김현진, 김미혜, 2014; 박현정, 신태수, 하여진, 이준호,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에서 9차까지 9개년에 걸쳐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시기까지의 사교육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종속변수로 다뤄지는 사교육 비용은 비교적 장기 간의 종단연구 모형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사교육 비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실질 사교육비’를 별도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고자 한다.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사교육 연구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교육 참여율이나 사교육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김기현, 2007; 박종서, 2015; 박철성, 2011; 양정호, 2006), 대부분이 양적인 증감 실태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개별 아동의 사교육 이용 변화 추이와 방향, 변화 정도와 개인차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 학령기 아동에 대한 사교육 이용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 내 변화와 개인 간 변화를 모두 고려하는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즉, 사교육 이용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단적으로 확장시키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아동의 사교육 이용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아동 개인의 특성, 부모의 특성,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예측변인이 갖는 종단적인 영향력을 정교화하기 위해 사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의 학업 성적과 부모의 교육 참여 정도를 시변변수(time-variant variables)로서 사용하고자 하였다. 사교육 이용이 초·중·고등학교에 걸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가정했을 때, 학업 성적이나 부모의 교육참여는 상위학교로 진급하거나 고학년이 되면서 동일하지 않고 달라질 수 있으므로 측정 시점별로 학업 성적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 아동, 부모, 가구의 특성이 사교육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횡단적으로 접근하였다면, 횡단적 영향력이 종단적으로 지속해서 나타나는지 변인들의 관계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이상의 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 이용하는 사교육 수 및 비용의 궤적은 어떠한가?
2. 아동이 이용하는 사교육 수 및 비용의 초기수준과 변화율에 대한 예측요인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고찰

1. 사교육 이용의 종단적 양상

학령기 아동이 이용하는 사교육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동성이 크다는 특성을 지닌다. 사교육 이용 실태를 초등학교 패널과 중학교 패널을 통해 살펴본 김기현(2007)의 연구를 살펴보면, 사교육을 받는 과목 수가 초등학교 4-6학년 때 4-5개였고, 고등학교로 진학 이후 평균 2개로 사교육을 받는 과목수가 크게 줄어든다고 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사교육비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증가하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 후 사교육비 차이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처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학년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사교육 이용의 개인내 변화를 살펴보는 종단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교육 이용에 관해 종단자료를 사용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양적인 증가나 감소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사교육비의 경우 해마다 증가한다거나 어느 시점 이후로 증가 추세가 둔화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나(박중서, 2015; 양정호, 2006; 우천식, 2004, pp.140-144), 한 시점에서의 평균값을 대표로 하는 접근이므로 개인내 변화가 선행적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박철성(2011)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 시기에 학부모의 학교 교육 만족도가 사교육비나 학생의 사교육 참여시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입시나 적응의 부담이 적은 중학교 2학년 시기에 사교육 수요의 탄력성이 있으리라는 바를 시사하고 있다. 사교육의 영향력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세 시점에서 살펴본 김기현(2007)의 연구에서는 사교육의 효과가 주로 중학교 2학년 때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 이용이 학년에 따라 선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개인내 변화 또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연도별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소득 5분위 집단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의 격차가 심화되거나(박중서, 2015; 양정호, 2006), 거주지역별 격차가 상위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분명해진다는 결과(김기현, 2007)가 있는데, 이는 사교육 이용의 변화 정도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복지패널의 아동용 부가조사는 아동이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06년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2014년까지의 사교육 이용 정도를 동일

하게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특성을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한다면 한 아동이 초·중·고등학교라는 학령기의 성장과정에서 사교육 이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즉 개인내 변화를 조망할 수 있다. 또한 사교육 이용이 개인마다 그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가정 하에 어떠한 특성이 변화 정도를 다르게 나타내는지 개인간 변화를 밝혀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한국복지패널 사교육 이용관련 변인을 분석하는 것은 자료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는 데 적합하다.

2. 사교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특성

사교육 이용의 주체인 아동 특성은 사교육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통계청에서 2000년에 실시된 가구소비실태조사를 분석한 남기곤(2008)은 자녀가 1인인 가구만 한정하여 자녀 학급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는 특정 자녀의 사교육 이용에 대해 다른 자녀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함이었고, 분석 결과 초등학교생이나 중학생이 있는 가구에 비해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의 사교육비 비중은 더 낮았다. 그러나 고등학생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가구 총지출 증가에 따라 가파르게 증가했으며(남기곤, 2008), 이는 사교육비 증감에 아동과 가구의 다양한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아동이 상급 학교에 진학하면서 아동의 학업 성적과 같이 교육에 관한 특성을 바탕으로 부모가 사교육 이용을 조절하기도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최하위 성적군에 비해 최상위 성적군의 경우 거의 전원이 사교육을 이용하고(김기현, 2007),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사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가정 내 지출도 많았다(신인철, 김기현, 2010; 통계청, 2015). 명문고등학교 진학 희망 여부가 사교육비 지출의 초기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김현진과 김미혜(2014)의 연구를 통해서도 사교육 이용이 아동의 성적과 관계가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성적과 과외시간 간에는 ‘역U자’의 관계가 존재했는데 그 중 중상위권 학생들의 과외시간이 가장 많았고(우천식, 2004, pp.7-37), 과외비 지출은 하위성적 20%의 학생이 상위성적 20%의 학생과 함께 가장 높았다(우천식, 2004, pp.53-89). 이는 학원수강 등의 사교육 이용이 맹목적이기 보다는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김영화, 2004).

학교 내의 적응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 또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김성식, 2012). 학교 적응이나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행동(김신애, 이형실, 임수경, 2008)은 이용하는 사교육 수와 관련이 있었고(백혜정, 김현신, 우남희, 2005), 사교육비는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와의 상관관계가 보고된 바 있다(박나래, 정익중, 2012). 이상의 선행연구는 과도한 사교육이 야기하는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사교육을 문제행동에 선행하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반대로 문제행동이 사교육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3. 사교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특성

교육은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 세대에게로 대물림되는 과정에서 그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로 알려져 있는데(여유진, 김수정, 구인희, 김계연, 2007),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자녀에게 교육을 통해 인적 투자를 하려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박종서, 2015).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높거나(김현진, 2005; 정익중, 2011) 혹은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이승신, 2002)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또한 경상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과 소비지출 대비 사교육비 지출 모두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더 많았다(김문길, 김태완, 박창렬, 여유진, 우선희, 2013).

부모 학력에 이어, 맞벌이 여부는 가구 총 소득에 직결되므로 사교육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외벌이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높고(통계청, 2015), 어머니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가정인 경우 아버지와 동등한 지위와 비중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독립적 경제 활동형과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 활동형 어머니의 가정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높았다(석재은, 김봉근, 노혜진, 201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 학교활동에 대한 참가, 자녀 친구와 부모와의 상호작용, 학습이나 생활 지도 등의 교육적 관여 수준이 높았으며, 자녀의 성취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변수용, 김경근, 2008). 또한, 자녀의 성적 유지나 숙제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하는 정도인 부모의 학업 지원이 자녀의 사교육 참여 시간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었다(연보라, 장희원, 김경근, 2013).

4. 사교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특성

한국 사회에서 자녀 교육비는 가계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소로 알려져 있는데, 교육비 중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교육비 지출은 자녀수와 비례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이승신, 2002). 박종서(2015)는 자녀수와 소득을 함께 고려하여 하위소득(1,2분위) 가구는 두 자녀 이상이 되었을 때 교육비 지출 비중을 늘리지 못한 반면, 상위소득(4,5분위) 가구는 두 자녀 이상인 경우에도 자녀 수 만큼 교육비 비중을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2015)의 사교육비 경감 추진 계획 자료에서는 월평균 소득 600만원 미만 가구에서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학원, 개인과외 등의 사교육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양극화 현상을 보여주었다. 사교육비 지출은 기본적으로 자녀수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총 가구 소득에 제한을 받고, 가정 내 자녀수가 많을수록 아동 1인에게 투자 가능한 자원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구의 특성은 거주하는 지역과도 관련이 있고, 지역에 따라 사교육의 공급과 교육열에도 차이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사교육 연구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고(정익중, 2011), 2014년 권역별 사교육비 분석에서는 서울, 중소도시, 광역시, 읍면 지역 순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III. 연구방법

1. 자료 및 연구대상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하고 발표하는 자료로 동일가구를 반복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주제인 아동가구의 사교육 이용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아동의 사교육 이용 변화와 이를 설명하는 예측변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가구 및 가구원 머지데이터 1차년도(2006)년부터 9차년도(2015년)까지의 자료와 1차, 4차, 7차년도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 아동용 부가조사 자료

를 활용하였다. 아동용 부가조사는 1차년도(2006년)에 초등학교 4, 5, 6학년이던 아동이 4차년도에 중학교 1, 2, 3학년이 되고, 7차년도에 고등학교 1, 2, 3학년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부터 9차년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면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까지의 변화를 모두 추적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초·중·고등학교 진학에 따른 사교육 이용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표 1>은 조사연도와 연구대상의 학년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연구대상의 학년별 분포

구분	1차년도 (2006)	2차년도 (2007)	3차년도 (2008)	4차년도 (2009)	5차년도 (2010)	6차년도 (2011)	7차년도 (2012)	8차년도 (2013)	9차년도 (2014)
초등 4학년	■								
초등 5학년	●	■							
초등 6학년	▲	●	■						
중등 1학년		▲	●	■					
중등 2학년			▲	●	■				
중등 3학년				▲	●	■			
고등 1학년					▲	●	■		
고등 2학년						▲	●	■	
고등 3학년							▲	●	■

자료는 1차년도 아동용 부가조사의 개인패널ID를 기준으로 분석하되, 머지데이터의 MERKEY를 통해 아동 가구원을 식별하여 얻은 부모와 가구의 특성 변인(예: 성별, 출생 순위, 부모 학력, 사교육 수와 비용 등)을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대상은 1차년도 아동용 부가조사에 참여한 초등학교 4, 5, 6학년생 759명 중에서 학년을 확인할 수 없었던 1명을 제외한 총 758명이다.

2. 연구변인

가. 종속변인

본 연구에서 정의한 사교육은 한국복지패널에서 조사된 문항에 따라 사설 교육기관 및 학교 내에서 보충수업이나 방과후 과정의 비용을 포함한 ‘협의의 사교육비’를 의미한다. 이광현과 권용재(2015)가 분류한 사교육비 개념과 범주에 근거할 때 학교 밖의 사설 교육기관에 학부모들이 지출하는 학원비, 개인과외비, 학습지 등의 제반 교육비가 ‘원론적 사교육비’라면, 학교 내에서 보충수업이나 방과후 과정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충수업비나 방과후과정비, 오후반 특별활동 프로그램 납부금 등의 제반 납부금을 포함하면 ‘협의의 사교육비’에 해당한다. ‘광의의 사교육비’는 학부모가 납부하는 수학여행비용, 현장학습비, 행사비, 급식 및 간식비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분석에 사용된 변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표 2>에 기술하였다. 종속변인인 사교육 수와 사교육비는 한국복지패널 가구용 데이터의 아동가구 사교육·보육기관 이용실태에 해당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조사표에는 아동자녀 가구원 번호, 이름, 이용 여부, 이용기관, 부대비용을 포함한 한 달 평균 사교육비, 보육비를 자녀마다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원 번호와 가구주와의 관계를 통해 아동용 조사의 개인패널ID와 매칭시켰으며, 대상이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으로 진학하는 것을 고려하여 사교육의 범위를 학원, 개인/그룹과외, 학습지(온라인 포함), 방과후 교내 보충학습, 방과후 교실, 기타로 총 6가지 유형으로 하였다. 한 명의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 유형은 최대 5개까지 적도록 하였는데, 아동자녀마다 응답빈도를 산출하여 이용하는 ‘사교육 수’ 변인을 생성하였다. 사교육 이용여부에 ‘안 한다’라고 응답한 아동의 경우 사교육 수는 0개, 사교육비는 0원으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가 1차에서 9차까지의 장기간의 자료를 이용하는 만큼, 사교육비는 당해연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사교육비’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1차년도의 실질 사교육비는 월평균 사교육비(22.42만원)를 2006년 소비자물가지수(88.07)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계산된 25.46만원이다¹⁾. 7차년도 조

1)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연도별 전국 전체품목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는 2006년 88.07, 2007년 90.30, 2008년 94.52, 2009년 97.13, 2010년 100.00, 2011년 104.00, 2012년 106.28, 2013년 107.67, 2014년 109.04로 제시됨(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OTITLE&tlistid=MT_CTITLE_에서 2016.3.10. 인출).

사에서 아동이 고등학교를 휴학하였거나 중퇴한 경우 7-9차년도에 사교육 수와 비용은 결측 처리하였다.

나. 아동 특성 독립변인

아동 특성에 해당하는 독립변인은 성별, 출생순위, 학업성적, 문제행동(우울 및 불안, 주의집중, 위축, 비행, 공격성)이다. 아동 성별과 출생순위는 머지데이터의 가구원 번호와 가구주와의 관계 변인을 통해 매칭시킨 값을 사용하였다. 출생순위는 값이 클수록 손아래형제임을 의미한다.

학업성적은 시변 독립변수로써 초·중·고등학교 급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아동용 부가조사 자료에 있는 1, 4, 7차년도 값을 모두 사용하였다. 아동이 학교성적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한 문항이고, 주요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과목 응답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제행동은 K-CBCL(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 중 우울 및 불안, 주의집중, 위축, 비행, 공격성에 관해 아동이 자기보고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에는 5가지 하위요인을 각각의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및 불안이 높고, 주의집중 수준이 낮고, 위축감 정도가 높고, 비행정도가 심하고, 공격성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다. 부모 특성 독립변인

부모 특성과 관련된 독립변인은 부모의 교육참여, 부모의 학력, 맞벌이 여부이다. 부모의 교육참여는 4차년도와 7차년도에 아동용 부가조사에서 측정되었고, 종단적 변화를 고려하여 시변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부모의 교육참여는 서울아동패널(2005)에서 조사된 문항이며 부모님과 학교생활에 관해 나누는 대화 정도, 부모님의 학교 방문 정도, 숙제 확인 정도와 관련된 내용이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인식한 부모의 교육참여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은 가구원의 '교육수준' 변수로 맞벌이 여부는 부모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를 사용하여 생성하였다.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경우를 미취업 상태로 보고,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은 나머지 근로형태는

취업중이라고 간주하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취업중이라면 ‘1’의 값을 갖도록 더미 변수 처리하였다. 부모의 경제활동상태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본 연구대상에서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맞벌이 가구의 아동은 1차년도 270명, 4차년도 243명, 7차년도 254명으로 변화폭이 낮게 나타나 1차년도의 취업여부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부모의 학력이나 맞벌이 여부 변인은 1차년도 머지데이터의 동거하는 가구원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였으므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경우는 결측 처리하였다.

라. 가구 특성 독립변인

가구 특성의 독립변인은 아동가구원의 수, 소득, 거주지역으로 모두 1차년도 머지데이터로 활용하였다. 아동가구원 수는 가구원의 태어난 연도 변수를 통해 1차년도를 기준으로 18세 이하인 형제자매의 빈도를 가구 ID별로 생성하였다. 아동가구원 수가 1명인 가구는 패널아동이 외동아인 것을 의미한다. 소득은 가처분소득을 5분위수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거주지역은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5개 권역별 지역구분(서울, 광역시, 시, 도농복합군, 군) 변수를 ‘군’을 기준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표 2. 변수의 정의

		사용 데이터	사용 차수	변수의 정의	
종속 변인	사교육 수	가구	1~9차	학원, 개인/그룹과의, 학습지(온라인 포함), 방과후 교내 보충학습, 방과후 교실, 기타의 응답빈도	
	사교육 비용	가구	1~9차	한 달 평균 사교육비/소비자물가지수*100, 단위: 만원	
아동 특성 독립 변인	성별	가구	1차	0=남학생, 1=여학생	
	출생순위	가구	1차	출생년도 환산, 1=첫째, 2=둘째, 3=셋째, 4=넷째 이상	
	학업 성적	아동	1,4,7차	국어, 영어, 수학 과목 응답의 평균값, 1=아주 못함, 2=중간 이하, 3=중간, 4=중간 이상, 5=아주 잘함	
	우울 및 불안	아동	1차	13문항의 평균값 0=전혀 아니다, 1=그런 편이다, 2=자주 그렇다	
	주의집중문제	아동	1차	11문항의 평균값 0=전혀 아니다, 1=그런 편이다, 2=자주 그렇다	
	위축	아동	1차	9문항의 평균값 0=전혀 아니다, 1=그런 편이다, 2=자주 그렇다	
	비행	아동	1차	12문항의 평균값 0=전혀 아니다, 1=그런 편이다, 2=자주 그렇다	
	공격성	아동	1차	19문항의 평균값 0=전혀 아니다, 1=그런 편이다, 2=자주 그렇다	
	부모 특성 독립 변인	부모의 교육참여	아동	4,7차	4문항의 평균값 0=전혀 그렇지 않다, 1=그렇지 않다, 2=그렇다, 3=항상 그렇다
		부 학력	가구	1차	교육수준1(학교 급), 교육수준2(졸업여부) 변수를 통 해 재코딩함 1=고등학교 졸업 이하, 2=전문대졸, 3=대졸, 4=대학 원 이상
모 학력		가구	1차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0=부모 둘 중 하나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 1=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취업중	
맞벌이부부 여부		가구	1차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0=부모 둘 중 하나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 1=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취업중	
가구 특성 독립 변인	아동가구원 수	가구	1차	가구원의 출생년도로 18세 이하의 아동가구원 빈도변수 산출	
	소득	가구	1차	가처분소득을 5분위수로 재코딩함 값 1~5(1=하위소득 20%, 5=상위소득 20%)	
	거주지역	가구	1차	군을 기준으로 서울, 광역시, 시, 도농복합군 더미 변수 생성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사교육 수와 비용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LGM)을 이용하였다(Muthén & Curran, 1997). 잠재성장모형은 반복 측정된 변인의 값을 통해 2개의 잠재변인, 초기값과 기울기로 구성된다. 초기값이 기준시점의 측정치라면, 기울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 즉 변화율이다. 잠재성장모형은 초기값과 기울기의 평균과 분산을 구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개인내 변화와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간 차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발달궤적을 탐색하는 데 적합한 방법론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잠재성장모형에 예측변인을 투입하면 예측변인이 발달 궤적에 있어서 개인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할 수 있다(Duncan & Duncan, 2009).

본 연구와 같이 반복측정으로 인해 결측값이 있는 패널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중도탈락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완전정보최대우도법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무선결측의 가정이 엄격하게 충족되지 않아도 편향되지 않은 추정치를 제공해준다(Muthén, Kaplan, & Hollis, 1987).

잠재성장모형은 구조방정식을 기반으로 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통해 평가하는데, 여러 모형적합도 지수 중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명확한 해석 기준을 지닌 적합도 지수를 사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Hu와 Bentler(1999)가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합으로 RMSEA .06과 SRMR .09를 제한한 것을 기준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의 기술통계는 IBM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잠재성장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Mplus 6.1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아동의 사교육 수와 비용 궤적을 알아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검증하는 기초 단계로 무조건부 모형을 각각 분석한 후, 측정된 자료의 값을 적합하게 나타내는 모형을 찾기 위해 선형모형(linear model)과 비선형모형(linear slope)을 비교하여 더 나은 모형을 결정하였다. 선형모형은 초기값은 모두 1로 고정하고 변화율은 각 시점에 0부터 9까지 요인부하량을 설정한 것이며, 비선형모형은 변화율 두 시점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상수로 고정하고 나머지 시점의 요인부하량은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한 것이다.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할 때에는 χ^2 의 차이값($\Delta\chi^2$)이나 CFI의 차이값(ΔCFI)을 통해서 비교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CFI의 차이값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Cheung과 Rensvold

(2002)이 제시한대로 선형모형과 비선형모형의 CFI가 .01 이상의 차이가 나면 선형모형보다 비선형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사교육 수와 비용의 무조건부 모형 검증에서 결정된 모형에 예측변인을 투입하여 잠재성장모형의 조건부 모형을 분석하였다. 각각의 초기율과 변화율에 예측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로계수와 그 유의도를 통해 결과를 해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일반적 경향

아동가구 사교육 이용의 종단적 변화와 그 예측요인을 탐색하기에 앞서 <표 3>에서 연구대상인 아동 758명과 해당 아동가구의 특성을 1차년도(2006년) 기준으로 기술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인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아가 318명으로 여아보다 다소 많았으며, 1차년도 기준으로 학년은 비슷한 비율로 분포하였다. 출생순위를 보면, 첫째아가 52.5%로 절반가량 차지하였으며 둘째가 41.3%로 많았다. 부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인 아버지가 60.7%, 고졸인 어머니가 77.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아버지 25.5%, 어머니 14.4%로 나타났다. 아동의 부모가 맞벌이로 일하는 경우는 45.9%로 절반 가량이었다.

연구대상인 아동의 가구 특성을 살펴보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동가구원의 수는 2명인 경우가 66.9%로 가장 많았으며, 3명이 19.3%였다. 아동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즉, 외동아인 경우는 11.7%이었다. 가구가 응답한 가처분소득에 따라 5분위 집단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하위소득 20%에 해당하는 경우 -121.46만원으로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소득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6223.55만원으로 4분위 집단인 3556.80만원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타났다. 거주지역으로는 시 단위에 거주하는 가구가 4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역시 27.3%, 서울 16.9%, 도농복합군 12.9%로 나타났다. 군 단위에 거주하는 아동은 2.5%로 타 지역에 비해 적었다.

표 3. 연구대상의 특성

(단위: 명, %, 만원)

아동 특성		부모 특성				가구 특성					
구분	빈도수	%	구분	빈도수	%	구분	빈도수	%			
성별	남아	318	54.1	아버지 학력	고졸 이하	379	60.7	아동 가구원 수	1명	89	11.7
					전문대 졸업	64	10.3		2명	507	66.9
					4년제 대학 졸업	159	25.5		3명	146	19.3
	여아	270	45.9	대학원 이상	22	3.5	4명		16	2.1	
					고졸 이하	509	77.8		가처분 소득 5분위 집단의 평균 (표준 편차)	1분위	-121.46만원 (9630.238)
					전문대 졸업	45	6.9			2분위	1712.87만원 (173.841)
4년제 대학 졸업	94	14.4	3분위	2379.90만원 (269.139)							
대학원 이상	6	0.9	4분위	3556.80만원 (397.765)							
5분위	6223.55만원 (2292.898)										
학년	초등4	264	34.8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509	77.8	가처분 소득 5분위 집단의 평균 (표준 편차)	1분위	-121.46만원 (9630.238)	
	초등5	234	30.9		전문대 졸업	45	6.9		2분위	1712.87만원 (173.841)	
	초등6	260	34.3		4년제 대학 졸업	94	14.4		3분위	2379.90만원 (269.139)	
					대학원 이상	6	0.9		4분위	3556.80만원 (397.765)	
5분위	6223.55만원 (2292.898)										
출생 순위	첫째	398	52.5	맞벌이 여부	맞벌이	318	54.1	거주 지역	서울	126	16.9
	둘째	313	41.3		아님				광역시	204	27.3
	셋째	46	6.1		맞벌이	270	45.9		시	301	40.3
	넷째	1	0.1						도농복합군	96	12.9
	이상								군	19	2.5

<표 4>는 연구대상인 아동 758명이 이용한 사교육 수와 비용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해 1차년도부터 9차년도까지의 기술통계치를 기술한 결과이다. 8차년도와 9차 년도에는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한 아동들의 탈락으로 인해 대상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1차년도에 초등학교 4, 5, 6학년인 아동이 평균 1.46개의 사교육을 이용하고, 아동의 가구에서는 해당 아동의 실질 사교육비로 월평균 25.46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 2, 3학년인 4차년도에는 평균 0.99개의 사교육을 이용하고, 월평균 26.33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차년도에 고등학교 1, 2, 3학년이

되었을 때에는 평균 0.81개의 사교육을 이용하고, 월 26.19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동이 이용하는 사교육 수는 꾸준히 줄어드는 형태가 나타나고, 아동가구가 지출하는 사교육 비용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비교적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사교육 수에 비해 사교육비는 해마다 증감 변동이 자주 나타났다. 실질 사교육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시기는 5차년도에 29.88만원으로 아동이 중등 2~3학년과 고등 1학년이었으며, 초등 5~6학년과 중등 1학년인 2차년도에 22.52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9년간의 시간에 걸쳐 실질 사교육비는 큰 편차를 보였다.

표 4. 사교육 수와 비용의 기술통계치

	사교육 수(단위: 개)					실질 사교육비(단위: 만원)				
	N	최소 값	최대 값	M	SD	N	최소 값	최대 값	M	SD
1차년도 2006년 초4,5,6	581	1.00	4.00	1.46	0.67	587	0.00	147.61	25.46	19.62
2차년도 2007년 초5,6,중1	666	0.00	5.00	1.20	0.79	502	0.00	110.74	22.52	20.05
3차년도 2008년 초6,중1,2	618	0.00	4.00	1.04	0.74	425	0.00	142.82	27.06	19.87
4차년도 2009년 중1,2,3	588	0.00	4.00	0.99	0.75	453	0.00	133.84	26.33	20.42
5차년도 2010년 중2,3,고1	564	0.00	5.00	0.93	0.81	344	0.00	180.00	29.88	21.08
6차년도 2011년 중3,고1,2	535	0.00	4.00	0.81	0.73	303	0.00	127.88	29.23	21.26
7차년도 2012년 고1,2,3	493	0.00	4.00	0.81	0.78	307	0.00	110.09	26.19	20.22
8차년도 2013년 고2,3	339	0.00	3.00	0.89	0.79	211	0.00	185.75	24.87	25.50
9차년도 2014년 고3	166	0.00	3.00	0.70	0.77	88	0.00	183.42	29.00	32.10

다음으로 <표 5>는 아동 특성과 관련된 예측변인인 학업성적과 문제행동, 부모 특성인 부모 교육참여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본 결과이다.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평균인 학업 성적은 아동이 초등학생인 1차년도에 5점 만점(잘 함)에 3.47점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중학생인 4차년도에는 3.14점, 고등학생인 7차년도에는 2.94점으로 보통에 못 미쳐 고학년이 되면서 지각하는 학업성적 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은 2점에 가까울수록 문제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각 항목 모두 0.4점 미만으로 거의 문제가 없다는 것에 가까웠다. 이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문제행동은 주의집중문제(0.3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울 및 불안,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점수가 비행,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보다 높은 편이었다. 4차년도에 아동이 지각한 부모가 교육에 참여하는 정도는 1.14점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에 가까워 부모의 교육참여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고등학생 시기인 7차년도에는 1.19점으로 중학교 시기와 비교했을 때 점수가 근소하게 증가하였다.

표 5. 측정변인의 기술통계치

(단위: 명, 점)

	학업 성적			문제행동					부모의 교육참여	
	1차	4차	7차	우울 및 불안	주의집중	위축	비행	공격성	4차	7차
<i>N</i>	746	562	466	746	746	746	746	746	563	477
최소값	1.00	1.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최대값	5.00	5.00	5.00	1.62	1.64	2.00	0.92	1.21	3.00	3.00
<i>M</i>	3.47	3.14	2.94	0.32	0.37	0.31	0.11	0.23	1.14	1.19
<i>SD</i>	0.87	0.98	0.89	0.30	0.32	0.33	0.14	0.24	0.62	0.63

2. 사교육 이용 수와 비용에 대한 무조건부 모형 검증

아동의 사교육 수와 비용 궤적을 잘 설명해주는 무조건부 모형을 결정하기 위해, 선형 모형과 비선형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고, 최종 모형에 대한 추정치와 함께 <표 6>에 기술하였다. 사교육 수 궤적의 선형모형과 비선형모형을 비교했을 때 ΔCFI 이 .01 이상으로 비선형모형으로 더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 때 적합도는 $RMSEA = .035$, $SRMR = .060$ 으로 나타나 적절한 수준을 나타냈다. 사교육 수 궤적의 비선형모형에서 얻은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에 대한 추정치를 살펴보면, 초기값의 평균은 1.325이었으며($p < .001$), 초기 수준에서 개인간 분산도 유의하게 나타났다($\Psi = .313$, $p < .001$). 변화율의 평균을 보면, 사교육 수가 해마다 평균적으로 0.104개씩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1$), 변화율의 분산은 .012($p < .001$)로 아동의 사교육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변화율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관계는 -.034로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1$). 즉 초기 사교육 수가 높은 아동일수록 초·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사교육 수의 감소치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사교육비 궤적의 선형모형과 비선형모형을 비교한 결과, ΔCFI 이 .01 이상으로 비선형모형이 $RMSEA = .054$, $SRMR = .062$ 로 더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사교육비용 궤적에서 초기값의 평균은 24.022만원($p < .001$)이었고, 초기 수준에서 개인간 분산도 유의하게 나타났다($\Psi = 290.684$, $p < .001$). 변화율의 평균은 0.123으로 사교육비용이 해마다 평균적으로 1,230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변화율의 분산은 12.847($p < .001$)로 아동의 사교육비가 서로 다른 속도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교육비용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관계는 -29.340 으로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1$). 따라서 초기 사교육비용이 높은 아동은 초·중·고등학생이 되면서 비용의 증가치가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및 추정치

		RMSEA (90% C.I.)	SRMR	CFI	초기값		변화율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관계
					평균	분산	평균	분산	
사교육 수	선형 모형	0.047 (0.036~0.059)	0.076	0.941	-	-	-	-	-
	비선형 모형	0.035 (0.022~0.048)	0.060	0.969	1.325***	0.313***	-0.104***	0.012***	-0.034***
사교육 비용	선형 모형	0.059 (0.048~0.071)	0.072	0.935	-	-	-	-	-
	비선형 모형	0.054 (0.042~0.067)	0.062	0.953	24.022***	290.684***	0.123	12.847***	-29.340***

주: *** $p < .001$.

3. 사교육 수와 비용에 대한 조건부 모형 검증

앞서 검증한 사교육 수와 비용의 무조건부 모형을 기반으로 예측변인을 투입하여 조건부 모형을 검증하였다. 사교육 수의 조건부 모형 적합도는 $RMSEA = .034$ (.021~.044), $SRMR = .041$ 이고, 사교육 비용은 $RMSEA = .045$ (.037~.052), $SRMR = .076$ 으로 나타나 조건부 모형이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아동과 부모, 가구의 특성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한 아동의 사교육 수와 비용 궤적 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7>과 같으며, 이로써 예측변인이 궤적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각각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다. 먼저 아동이 이용하는 사교육 수 초기값에 미치는 예측변인은 출생순위, 주의집중문제, 공격성, 부모의 교육참여(7차), 소득, 거주지역(서울, 시)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가 낮은 손아래형제일수록($\beta = -0.295, p < .001$), 주의집중문제가 적을수록($\beta = 0.257, p < .05$), 공격성이 높을수록($\beta = -0.262, p < .01$) 이용하는 사교육 수가 적었다. 7차년도에 부모의 교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이용하는 사교육 수는 많았다($\beta = 0.149, p < .05$).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하는 사교육 수는 많았다($\beta = 0.386, p < .001$). 거주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서울이거나($\beta = -0.261, p < .01$), 시 단위 지역에($\beta = -0.211, p < .05$) 거주할 때 이용하는 사교육 수가 적었다. 아동이 초등학교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진학함에 따라 사교육 수는 감소하였는데, 이때의 감소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은 출생순위, 학업성적(4차), 주의집중문제, 부모의 교육참여(7차), 서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가 손아래형제일수록($\beta = 0.229, p < .01$), 4차년도에 학업성적이 높을수록($\beta = 0.270, p < .01$), 아동이 다른 지역보다 서울에 거주할 때($\beta = 0.265, p < .05$) 사교육 수의 감소량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주의집중문제가 많을수록($\beta = -0.263, p < .05$), 7차년도에 부모의 교육참여가 높을수록($\beta = -0.204, p < .05$) 사교육 수의 감소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의 사교육 비용 초기값에 미치는 예측변인은 학업성적(1차), 아버지 학력, 아동가구원 수, 소득, 지역더미(서울) 변인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학업성적이 높을수록($\beta = 0.148, p < .05$),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beta = 0.293, p < .001$), 소득이 높을수록($\beta = 0.363, p < .001$), 서울에 거주하는 아동일수록($\beta = 0.258, p < .01$), 아동가구가 아동에게 월평균 지출하는 실질 사교육비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아동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사교육비는 적었다($\beta = -0.142, p < .05$). 초등학교이던 아동이 중고등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아동의 주의집중문제가 높게 나타날수록($\beta = -0.250, p < .05$), 7차년도에 부모의 교육참여가 높을수록($\beta = -0.180, p < .05$) 사교육비의 증가량이 작았고, 비행 문제가 높을수록 사교육비의 증가량은 크게 나타났다($\beta = 0.190, p < .05$). 가구의 특성으로는 서울에 거주할 때($\beta = -0.234, p < .05$), 광역시에 거주할 때($\beta = -0.312, p < .01$), 시에 거주할 때($\beta = -0.370, p < .01$) 사교육비의 증가량이 작았다. 전체적으로 성별, 우울 및 불안, 위축, 모 학력, 맞벌이 여부는 아동의 사교육 수나 비용의 궤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7. 예측변인을 투입한 사교육 수와 비용 귀적 모형의 경로계수

		사교육 수				사교육 비용			
		초기값		변화율		초기값		변화율	
		β	S.E.	β	S.E.	β	S.E.	β	S.E.
아동 특성	성별	-0.055	0.069	0.097	0.078	-0.007	0.059	-0.019	0.073
	출생순위	-0.295***	0.072	0.229**	0.082	-0.098	0.064	0.040	0.077
	학업 성적(1차)	0.086	0.084	0.001	0.096	0.148*	0.072	0.088	0.091
	학업 성적(4차)	-0.049	0.089	0.270**	0.101	0.062	0.076	-0.057	0.096
	학업 성적(7차)	-0.025	0.078	0.063	0.089	-0.105	0.067	0.114	0.083
	우울 및 불안	-0.099	0.099	0.112	0.112	0.028	0.085	0.009	0.104
	주의집중문제	0.257*	0.116	-0.263*	0.131	0.185	0.101	-0.250*	0.125
	위축	-0.012	0.096	-0.030	0.110	-0.010	0.083	-0.030	0.110
	비행	0.119	0.088	-0.014	0.100	-0.064	0.075	0.190*	0.093
	공격성	-0.262**	0.094	0.131	0.107	-0.077	0.081	0.004	0.102
부모 특성	부모의 교육참여(4차)	0.070	0.076	-0.021	0.086	0.026	0.066	0.131	0.080
	부모의 교육참여(7차)	0.149*	0.073	-0.204*	0.083	0.115	0.063	-0.180*	0.076
	부 학력	-0.020	0.091	0.185	0.103	0.293***	0.078	-0.059	0.093
	모 학력	0.098	0.088	0.021	0.100	0.045	0.075	0.140	0.089
	맞벌이부부 여부	-0.091	0.070	0.024	0.081	0.021	0.060	-0.107	0.075
가구 특성	아동가구원 수	0.098	0.074	-0.144	0.084	-0.142*	0.064	-0.048	0.080
	가처분소득5분위	0.386***	0.071	-0.167	0.083	0.363***	0.061	-0.024	0.078
	지역더미_서울	-0.261**	0.090	0.265*	0.101	0.258**	0.078	-0.234*	0.097
	지역더미_광역시	-0.169	0.103	0.193	0.116	0.084	0.089	-0.312**	0.111
	지역더미_시	-0.211*	0.105	0.151	0.119	0.187	0.091	-0.370**	0.112
	지역더미_도농복합군	-0.087	0.072	0.138	0.082	0.090	0.062	-0.066	0.078

주: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본 연구는 아동의 사교육 이용 원인을 종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복지패널의 가구 및 아동용 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아동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9년간의 사교육 수와 비용의 변화를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살펴보았고, 사교육 이용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아동, 부모, 가구의 특성을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와 사교육 이용의 종단적 특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년도부터 9차년도에 이르기까지, 즉 아동이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생이 됨에 따라 사교육 수는 감소하고 그 비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이 올라가면서 이용하는 사교육의 수가 감소하고, 명목상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김기현, 2007; 우천식, 2004, pp.53-89)와 유사하다. 본 연구는 동일한 집단을 해마다 반복 추적한 종단 자료를 기반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사교육 이용에 대한 무조건부 모형을 검증한 결과, 아동이 이용하는 사교육 수는 동일하게 감소하였다. 학교 급이 올라감에 따라 사교육 수가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결과는 학교 급에 따라 요구되는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는 국영수 과목뿐만 아니라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사교육을 이용하다가 상위학년이 될수록 대학 입시를 위한 전략과목 위주로 사교육을 선택하는 것(김기현, 2007)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사교육의 유형을 6가지, 이용기관의 수를 최대 5가지로 제한하여 조사되었으므로 이러한 해석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

사교육비의 개인 내 변화, 즉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사교육비를 해마다 지출금액으로만 보면 비용이 증가하는 듯 보이지만, 실질 사교육비는 물가로 인한 증가분이 보정된 값이기 때문에, 명목 사교육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명목 사교육비와 실질 사교육비의 변화 양상이 통계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추후 연구에서도 사교육비의 쓰임을 구별하여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9년간에 걸친 사교육 이용 수와 비용의 변화는 비선형적인 특성을 보였으며, 사교육 수와 비용의 변화율에 있어 개인 간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 사교육 이용의 변화 속도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에 따라 사교육 이용의 증감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아동, 부모, 가구 특성과 같은 예측변인이 사교육 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둘째, 무조건 모형에서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때 사교육 이용 수가 많았던 아동은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사교육 수가 더 빠른 속도로 감소했

다. 즉, 초반에 이용한 사교육 수가 많았던 아동은 같은 시기에 사교육을 더 적게 이용한 아동에 비해 사교육 수가 감소하는 변화폭이 더 컸다. 초등학교 때 사교육비 지출이 높았던 아동은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사교육비가 더 천천히 증가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던 아동은 이미 초반부터 많은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더 적은 비용을 지출했던 아동보다 지출의 증가폭이 적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 이용에 있어 개인 간 차이가 존재하며, 사교육 이용을 결정짓는데 개인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교육 변화를 살펴볼 때 있어 관련 예측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예측변인을 투입한 조건부 모형의 분석 결과, 학년 증가에 따른 사교육 수와 비용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특성은 출생순위, 학업성적, 주의집중문제, 비행, 공격성이었다. 이 중, 아동의 출생순위는 사교육 이용 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출생순위가 손아래형제일수록 초등 시기에 이용하던 사교육 수가 적었으며, 손아래형제일수록 이용하는 사교육 수가 완만하게 감소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용하는 사교육 수가 감소하고(김기현, 2007), 인적자본에 대한 부모의 투자에 있어 다른 자녀보다 첫째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는 결과(최형재, 2007)와 유사하다. 또한 순위자녀의 사교육 만족도를 통해 이후 자녀의 사교육 투자를 조절하는 등의 순위형제를 통한 사교육 이용경험이 이후 자녀의 사교육 이용에 있어 전략적 선택을 가져왔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업 성적은 아동이 초등학교(1차), 중학생(4차), 고등학생(7차)인 세 번의 시점에서 측정된 각각 다른 독립변수로 사용되었다. 그 결과, 학업 성적은 시점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아동의 초등학교 고학년 학업 성적이 높을 경우 동일 시점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 성적과 사교육 이용의 정적인 관계는 기존 횡단 연구에서 보여주었던 결과(김영화, 2004; 신인철, 김기현, 2010; 우천식, 2004, pp.53-89; 정익중, 2011)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초등학교 때 성적이 높은 아동의 경우 이후 사교육비에 대해 지속적인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중학교 때 성적이 높은 아동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될수록 이용하는 사교육 수의 변동이 적게 나타나, 아동의 중학교 학업 성적은 이후 사교육 이용에 있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사교육 이용이 초·중·고에 걸쳐 장기간 이루어지는 만큼 아동의 학업 성적이 동일하지 않고 변화하였기 때문

에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시변 변수로서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최하위 성적군에 비하여 최상위 성적군의 경우 거의 전원이 사교육을 이용한다는 결과(김기현, 2007)와 같이 상급 학교진학에 따라 점차 아동에 대한 선별적인 사교육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41개국의 수학성취도와 사교육의 관계를 살펴본 Baker 등(2001)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미래의 경쟁에서 이점을 얻고자 사교육을 받는 '강화전략(enrichment strategy)'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aker 등(2001)의 연구와 본 연구결과를 종합했을 때,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선별적인 투자 혹은 강화 전략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적과 사교육 이용의 관계를 다룬 국내 연구(우천식, 2004, pp.53-89)에서 과외비 지출이 상위 20%와 함께 하위 20%에서 모두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므로, 추후 소득구간 세분화를 통해 사교육 이용행태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행동 유형 중 주의집중문제는 사교육 이용과 가장 높은 관련이 있었다. 초등학교 시기에 주의집중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초기의 사교육 이용 수는 높았으나 중·고등학교 생이 되면서 이용하는 사교육 수가 빠르게 감소하였으며, 이후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속도도 낮았다. 문제행동이 학업 자체에 대한 주의집중 부족을 일으켜서 사교육 이용을 줄이거나, 또래와 교사들로부터의 부정적인 피드백 등을 야기하여 학업에 어려움을 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처럼 초기의 문제행동 증상이 이후 사교육 이용에 있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초등학교 때 문제행동을 보였더라도 학교안팎으로 학업에 흥미를 잃지 않고 꾸준히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를 적극 활용하거나 Wee 클래스(학생위기상담종합지원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문제행동이 높은 아동에 대해 조기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사교육 이용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특성은 부모의 교육참여, 아버지의 학력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아동은 초기의 사교육 비용이 높았으나,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사교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써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김문길 등, 2013; 김현진, 2005; 이승신, 2002; 정익중, 2011)에서도 학력과 사교육비 간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 수준이 지속적인 사교육 이용의 종단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부모의 교육배경이 아동에게

사교육을 제공해주는 환경으로써 초기에 주요한 작용을 할 수 있으나,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교육 이용에는 부모의 배경보다 아동의 성적이나 문제행동 등 아동의 개별특성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교육참여 정도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아동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일 때 2회 측정 되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점에서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으나, 중학생 시점일 때보다 고등학교 시점에서 부모의 교육 참여가 사교육 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고등학생일 때 부모의 교육 참여가 높을수록 사교육 이용 수는 빠르게 감소하고 사교육비는 천천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 참여는 아동이 부모님과 학교생활에 관해 나누는 대화 정도나 부모님의 학교 방문과 숙제 확인 등을 의미하는데, 고등학교 시기에는 이러한 참여가 사교육 이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중학생 자녀의 성적 유지나 숙제를 위한 정보 제공과 같은 부모의 학업적 관여가 자녀의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연보라, 장희원, 김경근, 2013)으로 보고된 바 있다.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 때 사교육 이용이 아동의 학습 방법이나 입시 전망, 진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으로 보아, 이 과정에서 부모의 교육 참여 정도가 사교육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교육참여 점수가 1.00점으로 매우 낮은 편인 것과 8차년도 부터 고등학교 졸업자로 인한 결측치가 많은 것으로 볼 때, 고등학교 시기의 부모 교육 참여가 사교육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가구 특성으로는 아동가구원 수, 소득, 거주 지역이 모두 아동의 사교육 이용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내 자녀수가 많을수록 초기 사교육비가 적게 나타났으나 이후 사교육 이용 변화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형제자매수가 많을수록 한 자녀에게 지출하게 되는 사교육비가 적다는 것은 사교육 이용이 가구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김기현, 2007; 이승신, 2002; 정익중, 2011). 학령기 자녀수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를 소득 구간별로 분석한 연구(박중서, 2015)에서도 전체 소득 구간 모두에서 두 자녀까지만 사교육비와 자녀수가 비례하고, 셋째 자녀 이후부터의 사교육 지출은 가구 소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가구 내 자녀수와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가구 소득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소득 5분위를 기준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초등학교 시기에 이용하는

사교육 수가 많았고, 비용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종단적인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가구 소득의 제한으로 인해 탄력적인 가구 소비의 운용이 어려우므로(백학영, 안서연, 2012), 사교육비의 증가는 저소득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거주 지역의 경우, 서울이나 시 단위에 거주하는 아동은 타 지역 거주아동에 비해 사교육 이용 수가 적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아동은 이후 변화율에도 영향을 미쳐 사교육 수가 완만한 속도로 감소하였으며, 초기에 사교육비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지역이 서울, 광역시, 시일 때 고학년이 되면서 사교육비 지출은 천천히 증가하였다. 서울 혹은 시 단위에 거주하는 아동은 다른 지역의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교육을 이용하되, 과목당 높은 비용의 사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은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서, 사교육 이용 수나 비용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서울특별시교육청(2015)과 김기현(2007)의 연구에서도 서울에 집중된 사교육과 지역 간 격차가 고교 진학 후에 더 벌어진다는 점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연구마다 지역 구분이 달라 정확한 비교가 어렵고, 지역 간 사교육비 수요와 공급의 차이, 과목 및 유형별 사교육비 단가가 상이한 점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추후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

이상의 주요 연구 결과를 통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사교육 수와 비용의 변화를 예측하는 아동, 부모, 가구 특성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학년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이용 수나 비용이 오히려 감소하는 아동들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업 성적이 낮거나 주의집중이 어렵고, 서울 등의 대도시에서 거주하지 않는 아동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우려되는 점은, 이들의 경우 대학 입시에 가까운 고학년이 될수록 사교육에 덜 참여하고 지출 또한 적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학령 초기에 이미 높은 학업 성적을 보인 아동은 사교육을 통해 이를 더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서 그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학교 급이 증가할수록 사교육의 범위가 한정되고, 대학 입시를 위해 주요 교과목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교육 이용은 보편적이라 할 수 없으며 특정 대상에게 더 많이 치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교육의 내실화와 더불어, 공교육을 보충하는 개념의 사교육이 가급적 학교 내에서 적은 비용이되 높은 질의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 시기까지 상위학년 진학에 따른 사교육 이용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구조사, 가구원조사, 아동부가조사로 구성된 한국복지패널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교육 이용의 종단적 변화라는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시기의 사교육 이용 변화 궤적을 살펴보고, 어떠한 특성이 개인마다의 사교육 이용 변화 궤적에 차이를 가져오는지 탐색하였다. 그리고 사교육 이용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아동 특성, 부모 특성, 가구 특성 수준으로 나누어 탐색함으로써 아동과 아동을 둘러싼 환경, 사교육 이용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교육의 이용을 수와 비용으로 한정하여 양적인 측면만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학년별로 필요한 교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교육의 과목, 종류와 같은 질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사교육 이용행태에 대해 보다 폭넓은 시사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 시점에 연령이 상이한 대상을 동일 집단으로 하여 9년간의 종단 변화를 추적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사교육 이용의 변화를 분석할 때에는 연구대상을 세분화하여 각 학년의 특성을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김신경은 연세대학교에서 아동가족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육아정책연구소 아동패널연구팀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전생애 발달, 세대간 상호작용, 가족관계이며, 현재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아동기 부모-자녀관계, 아동과 환경의 상호작용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sink@kicce.re.kr)

김소아는 연세대학교에서 아동가족학 석사학위(발달 전공)를 취득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 아동패널연구팀 연구원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세브란스 푸르니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취약계층아동 관련 연구이다.

(E-mail: kimsa@puruni.com)

송요현은 인하대학교에서 아동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발달, 아동 및 가족관계, 아동을 중심으로 한 체계와 맥락 등이며, 아동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실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mail: leoyoyo@kicce.re.kr)

참고문헌

- 강창희, 현보훈. (2012). 가족내 자녀수가 자녀에 대한 사교육 투자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35(1), pp.111-131.
- 김경근, 연보라, 장희원. (2014). 서울시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 영향요인 및 그 함의. *교육사회학연구*, 24(4), pp.1-29.
- 김기현. (2007). 청소년 사교육 이용실태 및 효과에 대한 종단분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문길, 김태완, 박창렬, 여유진, 우선희. (2013).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식. (2012). 학생 배경과 방과 후 활동에 따른 초등학생의 학교 적응도 차이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2(3), pp.27-47.
- 김신애, 이형실, 임수경. (2008). 남녀 청소년의 가족체계유형과 학교생활적응 및 행동문제의 관련성.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0(4), pp.1-17.
- 김영화. (2004). 사교육 선호 경향 및 선호 요인 분석 연구. *교육학연구*, 42(2), pp.335-365.
- 김현진. (2005). 사회계층변인(소득, 부모학력,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연구. 서울: 중앙고용정보원.
- 김현진, 김미혜. (2014). 학년에 따라 증가하는 중학생의 사교육비 지출 잠재성장모형(LGM)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2(2), pp.85-106.
- 남기근. (2008). 부유한 가정일수록 사교육비 비중이 높아지는가. *경제발전연구*, 14(1), pp.27-53.
- 노현경. (2006). 학부모 및 학생 관련 요인과 사교육비 지출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4(1), pp.97-118.
- 박나래, 정익중. (2012). 방임, 과보호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사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7, pp.139-164.
- 박중서. (2015). 학업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비지출 구조와 교육비 부담. *보건·복지 Issue & Focus*, 293, pp.1-8.
- 박철성. (2011).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사교육 수요의 결정 요인에 관한

- 연구. **한국교육의 분석**, 17(1), pp.75-119.
- 박현정, 신태수, 하여진, 이준호. (2011). 사교육비 지출의 변화 패턴과 관련 특성 분석. **교육평가연구**, 24(2), pp.291-316.
- 백학영, 안서연. (2012).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가구의 소비지출 변화. **한국사회정책**, 19(3), pp.9-47.
- 백혜정, 김현신, 우남희. (2005). 조기사교육 경험이 있는 유아들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3, pp.23-43.
- 변수용, 김경근. (2008).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정배경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8(1), pp.39-66.
- 서울아동패널. (2005). **서울 아동발달 및 복지실태조사 설문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www.childpanel.com에서 2015.7.6. 인출.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사교육비 경감 추진 계획**. pp.6. <http://buseo.sen.go.kr/view/jsp/bbsDownload.jsp?bbsCd=315&bbsSeq=41&orderNo=1>에서 2015.7.6. 인출.
- 석재은, 김봉근, 노혜진. (2012). 한국의 유배우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28(3), pp.87-120.
- 신인철, 김기현. (2010). 학업성취도가 사교육 이용 결정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0(1), pp.127-150.
- 양정호. (2006). 한국의 사교육비 격차 추세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패널조사의 다극화 지수와 지니 계수를 이용한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5(2), pp.199-219.
- 여유진, 김수정, 구인회, 김계연. (2007). **교육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보라, 장희원, 김경근. (201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지원, 양육방식, 사교육 참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19(3), pp.99-122.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우천식. (편). (2004).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그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이광현, 권용재. (2015). 유아 사교육비 지출 규모·실태 및 지출 요인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2(3), pp.83-107.
- 이승신. (2002).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경제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40(7), pp.211-227.

- 정익중. (2011). 초중고 사교육비의 사회계층적 예측요인과 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 복지학*, 35. pp.73-98.
- 최형재. (2007). 사교육이 대학진학에 도움을 주는가? 제8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 집.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통계청. (2015.2.26). 2014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http://kostat.go.kr>에서 2015.7.6. 인출.
-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pp.233-255.
- David P. Baker, Motoko Akiba, Gerald K. LeTendre and Alexander W. Wiseman. (2001). Worldwide Shadow Education: Outside-School Learning, Institutional Quality of Schooling, and Cross-National Mathematics Achievement.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23(1), pp.1-17.
- Duncan, T. E., & Duncan, S. C. (2009). The ABC's of LGM: An Introductory Guide to Latent Variable Growth Curv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3(6), pp.979-991.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pp.1-55.
- Muthén, B. O., & Curran, P. J. (1997). General longitudinal modeling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xperimental designs: A latent variable framework for analysis and power estimation. *Psychological Methods*, 2(4), pp.371-402.
- Muthén, B., Kaplan, D., & Hollis, M. (1987). 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data that are not missing completely at random. *Psychometrika*, 52(3), pp.431-462.
- OECD. (2011). *Private spending on education*. <https://data.oecd.org/eduresource/private-spending-on-education.htm>에서 2015.7.3. 인출.
- The Korea Herald. (2014. 9. 10). *Korea has highest reliance on private education market in OECD: report*.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40910000235&cmd=20140913004839_BL에서 2015.8.5. 인출.

Predictors and Longitudinal Changes in Extra-curricular Education of Korean Students

Kim, Sinkyung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m, Soa

(Severance Puruni)

Song, Yo Hyu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child, parental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on the trajectories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use in Korean students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A sample of 758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2006-2014 were used for this analysis. First, the data showed a significant decline in the number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use among students over time. The change rate of the expenses in extra-curricular education was not significant. There were individual differences in trajectories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use during 9 years. Second, child characteristics affecting extra-curricular education use were birth order, academic achievement, attention problem, delinquency, and aggression. Third, father's education level was a positive predictor of the use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at the initial level. Parental participation was related with the rate of change in the use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Fourth, all household characteristics (the number of siblings, income, and residential districts)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trajectories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use.

Keywords: Extra-curricular Education Use, Extra-curricular Education Expenses, Latent Growth Modeling, Korea Welfare Panel Study